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지뢰가 폭발하듯이 꽃은 만발하고, 대포가 터진 자리에는 꽃 사태였다. 봄은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의 전쟁이다. 평지와 들판마다 흐드러진 개나리 산수유 진달래...

봄꽃 진 뒤 느티나무 목은 가지마다 연두색 새잎들이 돋고, 가랑잎 두텁게 쌓인 표토를 밟아 울리며 원추리 싹이 때 지어 올라온다. 도처에서 피어나고, 돋고, 꿈틀거리고, 뻗치는 것은 봄에 대한 살아 있는 것들의 벅찬 생명 반응들이다. 봄꽃 들레에 노오란 햇빛이 끝벌레처럼...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마태오복음 12장 20절) 부자들이 쌓아 올린 재산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정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는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했는지 궁금하다. 정당한 방법이란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다.

작금의 세상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다.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 남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것이 옳고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옳고 좋은 것인지는 반문해 봐야 한다. 불행하고 부족해도 기쁘고 행복한 삶은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부유한 이들과 기득권이라 칭하는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집중한다. 소유하고 쌓고 남치도록 누리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모습이 다분하

기고



이진영

전 전남도 관광진흥과장

오늘날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가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맞물린 고령화는 불가항력의 문제이지만, 저출산과 맞물린 상황에서 앞으로 고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고용과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등 여러 요인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 추세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여생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사회의 통계적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오늘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룬 세대인 오늘의 노인들은 지난한 시절을 겪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유년을 보냈을 만큼 보릿고개를 비롯한 배고픔의 시기를 겪었다. 오로지 지식 세대들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각오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했던 세대가 오늘의 노인 어르신

봄날이 가도 삶은 계속되어야 해

봄날 대가에는 꽃들이 어지럽게 내뿜는 방향만이 아니라 약간의 허무, 약간의 슬픔, 약간의 외로움도 함께 녹아 있다. 봄날의 바람과 태양이 우리 젊음을 약탈해 가듯이 세월이 돈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열망하던 우리의 푸르고 아름다운 젊은 날을 앗아간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의 첫 키스는 뇌리에 각인되도록 각인되지만 어느 입술이 열일곱 번째로 내 입술에 가 닿았던 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토록 얇은 기억의 용량이라니!

우리 오감을 문자르던 꽃이 다 지면, 보람과 기쁨을 앗아간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름다운 것들의 유효기간은 비정상적으로 짧구나! 종달새 우짖는 이 허전한 봄날을 어떻게 맨 정신으로 견딜 수 있나? 오래 전에 헤어진 당신은 잘 지내는가? 이제는 유난히 창랑이던 당신의 검은 머릿결만 기억날 뿐 나머지 이목구비는 희미해졌다. 당신에게 미처 부치지 못한 편지들을 꿈속의 우체통에 집어넣는 꿈에서 깨어난 아침에는 가슴이 텅 빈 듯 허전하다. 나는 아침을 먹고 나가 공연히 근린공원을 한 바퀴 돌고, 불 일도 없는데 동사 무소에도 들렀다가 돌아온다.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서 철학책을 빌어 반나절 넘게 읽고, 저녁 무렵엔 강가를 따라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봄날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지나간다. 희망과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하던 우리의 전성기도 지나간다. 우리는 팔짱을 낀 채로 속수무책으로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바다의 악령인 하얀 고래를 쫓던 에이허브 선장처럼 용맹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누가 기억할

까! 아무도 우리가 삶에서 거둔 공훈을 기억하지 못하리라. 봄날 저녁의 어스름에 찾아드는 허무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 보람이던 봄꽃의 수명은 짧고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은 길다. 빈센트 밀레이는 노래한다. “내 밥그릇은 고통으로 가득 차 남친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라고.

봄날의 달콤한 고통과 허무를 견디며 우리는 속절없이 하루하루 늙어간다. 한 살이라도 더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한 가지는 인생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점이다. 인생 마일리지는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의 두터움이고, 그것에서 양조된 인격의 원숙함이다, 우리는 치열하게 고투하며 보낸 젊은 시절을 지불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 인생 마일리지란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원숙함이란 이름의 훈장이다. 당신의 인생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는가?

봄의 무대에서 꽃들은 퇴장했다. 그렇다고 낙담하고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한 계절이 끝나면 새로운 계절이 달려온다. 우리에게 살아갈 날들이 무궁무진하다. 봄을 여인 슬픔을 딛고 우리의 갈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자. 먼 데서 당신이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 우리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능률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봄이 떠나면서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힌 자리를 말끔하게 치우는 것이다. 봄날이 끝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저마다 제 인생의 이야기를 마저 써야 한다.

절망과 자멸, 희망

다.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부와 높은 자리는 항상 그들 곁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이들의 덕이라는 사실이다.

부유함은 그냥 소유되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와 같은 기득권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의 결실이고 누군가의 목숨 값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은 편안과 풍요의 탐닉으로 가려지고 잊힌다.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데인데 보이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다. 이 작은 이들이 있기에 자신들이 부를 향유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도 말이다.

차별과 착취의 이유는 높고 낮음이라는 물질과 경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이들과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이들의 피와 땀이 저평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을 자주 사용했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자 수단화되어서는 안 된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지만 지금의 세상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모습이다. ‘절망과 자멸’에서, 절망은 어떤 기대와 희망에 대한 좌절이다.

우리가 무엇과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는지 묻고 싶다. 희망이 갈기갈기 찢기고 짓밟히면 좌절하게 되는데, 좌절은 대부분 물질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이며 결핍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이다. 그래서 절망은 자멸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페인어의 ‘Suicidio’ (수이시디오)는 자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자멸의 의미도 있다. 자신의 부와 자리를 위해 목적 자체인 인간 존재

가 수단화되었을 때, 이용당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러진 갈대를 꺾어 버리는 것이고, 약한 불씨를 강풍으로 꺼 버리는 것과 같다.

부정한 부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그렇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 창고에 비어 있는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 공간을 기필코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오직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의 전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빼앗고 빈 공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부정한 부를 축적하는 부자가 빈 공간을 채우는 행태는 하나의 쾌락이지만, 가난한 농부에게는 자신과 가족에게 마지막 재산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쾌락을 위해 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에서 자주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부정한 부자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농부의 존재는 자신을 지켜주는 동료로 세상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이다. 결국 부자와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해 줄 원천과 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켜 주는 근본을 없애 버려 자멸하는 여러석은 자일뿐이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꾸립시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이 떠오른다. 절망으로 함께 자멸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으로 공존할 것인지? 부활을 맞이하며 모두가 희망으로 기뻐하기를 기대해 본다.

노년에 대한 단상

들이다. “한 노인이 쓰러지면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그만큼 한 분 한 분 노인들에게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지혜와 삶에 대한 통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절 가난을 극복하기 흘렸을 땀과 눈물은 지혜의 토대가 되었고 오늘날 경제 대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선진국 반열로의 진입은 이분들의 헌신과 노고와 피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미다. 삶의 철학이 후예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져 오늘날 이 사회를 존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관점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사회적 스승으로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부 젊은 세대들은 ‘꼰대’라느니 하는 말 등으로 폄하하기 일쑤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대 차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오해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어느 세대나 나름의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세대 차이가 아닌 세대 공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수다. 경제적 지원 못지 않게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 긍정적인 존경의 시각도 우리 사회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 세대들 또한 여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야 할 덕목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

기 건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가족들과의 화목한 관계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좋아하는 한두 가지 취미를 가져서 일상이 무료하지 않도록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며 더불어 나이의 무관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욕은 금물이다.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번뇌(煩惱)나 망상(妄想)을 갖지 않고, 그러한 생각에 몰입되기 전에 빨리 털어 버리는 자세도 중요하다.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다.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뉴스, 시사적인 소식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요한 장수 비결 가운데 첫 번째는 지나친 음주를 피하는 것이다.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지만 너무 많은 술은 결국 건강을 해치게 만든다. 물론 음주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원칙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사람은 일생을 통해 두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하나는 결혼으로 한 생애를 같이할 반려자를 만나는 것과 자기의 대를 이어갈 2세를 낳아 만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만남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로와 격려의 관계를 유지할 때, 노년의 건강은 담보될 수 있다고 본다.

社說

외국인 노동자 합리적 임금 체계 고민해야

최근 나주시 전역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해 달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게시자는 나주시의회와 의원 연구단체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 나주배원에농협 등이다. 천정부지 오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농가와 인력 사무소에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가 담겼다. 나주시의회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적정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임금을 정했다고 한다.

농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가이드 라인을 반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나주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농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까지만 해도 하루 8만~9만 원대였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지난해부터 13만~15만 원까지 뛰었다. 한 농민은 “해마다 지출하는 경영 비용 중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였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적기에 적정 임금이 공

론화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고용주 간 ‘담합’으로 억제할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흥관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무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자들이 담합을 하고 인위적으로 임금을 낮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기기 힘든 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불만을 갖고 일터를 벗어날 경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전남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들을 빼놓고는 농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다고 마냥 저임금에 시장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당국, 지역사회가 농가 부담을 덜고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피해를 막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전남 사고 위험 교량 20개 긴급 점검·보강을

전남 도로 교량 중 20개가 지난해 안전 진단에서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행로 붕괴 사고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가 C등급(보통)이었다는 점에서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 D등급 이하 도로 교량은 2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D등급 이하 도로 교량 189개의 10%를 웃도는 수치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강원(57곳), 경북(42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뉜다.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 등급 처분과 동시에 사용

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한다. 시군별 D·E 등급 도로 교량은 영광이 일곱 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장흥 각 세 곳, 고흥·진도·담양·강진·나주·신안·해남 각 한 곳 등이었다.

이들 교량의 안전 등급은 잇그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보다 훨씬 취약해 그만큼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정자교는 보통인 C등급을 받았는데도 보행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의 강화가 절실해 보인다. 지자체와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단 등 교량 관리 주체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 외에 해당 교량에 대한 정밀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남에는 특히 설치된 지 30~40년 이상 지난 노후 교량들이 적지 않아 안전 진단에서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매년 20개를 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 아래 보강과 개축을 서둘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TV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됐던 황기환 애국 지사의 유해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 직전, 100년만에 조국에 도착했다. 황 지사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군인의 일원으로 참전했으며, 이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시점에 파리와 런던, 뉴욕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동한 독립(애국) 지사 한 분을 ‘이탈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독립 지사와 관련한 많은 보도를

의사와 열사

의사는의사(義士)·열사(烈士)·지사(志士) 등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다. 지인 열 명에게 직접 세 호칭의 뜻을 물었다. 의사와 열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 세 명이었으며, 의사·열사·지사에 호칭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의사’는 ‘의로운 지사’, ‘열사’는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이라고 풀이돼 있다.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는 뜻을 가진 사

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인 수준이다.

세 호칭 모두 독립운동을 한 분들에게 붙는데 안중근·윤봉길·이봉창 의사, 유관순·이준·민영환 열사에서 보듯 그 호칭의 쓰임새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훈처가 밝힌 의사·열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의사’는 무력(武力)으로써 항거해 의를

에 사용되는 명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한 사람, 즉 지식과 사상·항거 등을 통해 독립 투쟁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의사·열사까지 망라한 개념이다. 다만 지사는 의사·열사와 달리 생존자에도 쓸 수 있는 용어다.

‘안중근 열사’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듯 의사와 열사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영원히 써야 할 호칭들인 만큼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